

사상체질진단 표준안 연구

김종원 · 정성일 · 최미옥 · 김규곤¹ · 이의주² · 김종열³ · 이용태^{4*}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1: 동의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2: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3: 한국한의학연구원, 4: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Golden Standard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Jong Won Kim, Sung Il Jung, Mi Ok Choi, Kyu Kon Kim¹, Eui Ju Lee², Jong Yeol Kim³, Yong Tae Lee^{4*}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1: Department of Information Statistics, Dong-Eui University,

2: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3: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4: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We will develop new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program. Therefore we need new golden standard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First, we investigated old records and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Next, we consulted with 10 sasang constitutional experts about new golden standard for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The result as follows ; Golden standard for Taeyangin : It be made up 42 items(body type 6 items, external appearance 10 items, mental characteristics 16 items, physiology&pathologic symptoms 10 items). ② Golden standard for Soyangin : It be made up 63 items(body type 7 items, external appearance 28 items, mental characteristics 17 items, physiology&pathologic symptoms 10 items). ③ Golden standard for Taeummin : It be made up 71 items(body type 12 items, external appearance 19 items, mental characteristics 28 items, physiology&pathologic symptoms 12 items). ④ Golden standard for Soeumin : It be made up 54 items(body type 11 items, external appearance 13items, mental characteristics 21 items, physiology&pathologic symptoms 9 items).

Key words : golden standard,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 body type, external appearance, mental characteristics, physiology & pathologic symptoms

서 론

사상의학은 1894년 이제마가 동의수세보원에서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에 따라 장부대소가 다르고 이에 따른 생리병리 및 치료 양생방법이 다르다고 한 체질의학이론이다.¹⁾ 사상의학은 임상에서 진료시 체질결과에 따라 투여되는 약물처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체질진단은 임상진료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사상체질진단법은 동의수세보원 변증론에서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약리의 네 가지 진단방법을 위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임상적용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동무도 체질변증이 어려운 체질간의 비교에 대하여 嘔證은 태양인의 병증이나 소음인 노인에게도 이와 유사한 병증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소음인과 태양인을 잘 구별해야한다 라고 하였고, 또한 소양인 중에도 마치 소음인과 같이 다소정아한 자가 있으며 소음인 중에도 8-9척 장대한자가 있고 태음인 중에도 6-7척의 왜단한자가 있으므로 그 병증을 잘 살펴서 진단하라고 하였다.²⁾ 이처럼 실제로 체질진단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의사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질진단의 객관적인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형 및 두면부 계측³⁻¹⁰⁾, 생화학적 검사¹¹⁻¹³⁾, 유전자검사^{14,15)}, 진단기기를 이용한 방법¹⁶⁻¹⁹⁾, 기타 방법²⁰⁻²¹⁾ 등 여러 가지 체질진단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심리적, 정신적 요소가 결여 되어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는 적용하기 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런 면을 보완하여 심성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보고식 設問調査紙를 이용한 體質 진단연구가 있어왔다.²²⁾ 高 등^{2,3,24)}의 設問紙 방법이 나온 이후 金과 李가 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와 四象體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시 부산진구 진리1로 10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e@deu.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5/10/17 · 수정 : 2005/11/02 · 채택 : 2005/11/30

質分類檢査紙(QSCC II)^{25,28)}를 개발하였으며 그 후 設問調査의 妥當性を 檢證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29,32)}이 있어 왔다. 현재는 四象體質分類檢査紙인 QSCC II를 위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QSCC II는 태양인 판별식이 없다는 점, 체질진단 정확율이 비교적 낮다는 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결국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와 四象體質分類 檢査紙(QSCC II)가 개발되어 사상체질의학의 객관적 체질진단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상체질 중에서 태양인을 진단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체질진단의 정확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임상연구과정에서 항상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02년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동의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QSCC II 수정을 위한 공동연구가 있었는데 그 결과 부분적인 수정으로는 진단정확율의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새로운 체질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새로운 체질진단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체질진단을 할 때 체질진단기준에 대한 표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상문헌과 학회지의 논문 중에 체질진단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약리의 항목 중에 배정한 후에, 이것을 10명의 사상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체질진단기준을 고찰 정리하여 사상체질진단의 표준안을 만들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실험적 연구(non-experimental design)로 사상인 체질진단 표준안 개발을 위한 연구이다.

1) 문헌에 따른 체질진단표준안 문항 정리

동의수세보원 외 다른 사상의학 서적, 사상학회지를 참고하여 각 체질별 체질진단 기준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1) 참고한 사상의학 서적은 다음과 같다.

- ① 四象醫學原論. 이제마 원저/홍순용 이을호 역. 행림 서울 1995
- ② 東醫四象要訣. 박인상 소나무. 1992.
- ③ 동의사상신편. 이제마. 한림원. 1990.
- ④ 사상방약합편. 권영식. 행림서원. 1945.
- ⑤ 동의수세보원보편(일명 보제연설) 김달래 편역 대성의학사 2002
- ⑥ 사상진료보원. 홍순용. 서원당. 2002.
- ⑦ 동의사상대전. 박석언. 의도한국사. 1977.
- ⑧ 조의학. 연변조선족자치주민족의학연구소 서울 여강 1992
- ⑨ 중국의학백과사전(조의학) 중국의학백과사전편찬위원회 상해과학기술출판사 1992
- ⑩ 四象醫學. 전국한외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집문당. 2000.
- ⑪ 동의수세보원. 이제마. 행림. 1996.
- ⑫ 동의수세보원 사상초본권. 이제마 원저. 박성식 역해. 집문당. 2003.
- ⑬ 알기 쉬운 사상의학. 송일병. 하나미디어. 1993.
- ⑭ 사상체질의학론. 윤길영. 서울. 명보출판사. 1986.
- ⑮ 한국의 체질이론 경희대학교한외과대학 서울 대성문화사

1997

⑯ 성리임상학. 김주. 대성문화사. 1997.

⑰ 동의사상의학강좌. 유주열 대성문화사

2) 체질진단 기준의 범주에 따른 체질진단표준안 문항 정리
동의수세보원과 사상의학서적 사상학회지 논문 등을 고찰하여 문항 정리한 것을 다시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약리의 체질진단 기준의 범주에 따라 문항을 정리하였다.

3) 1차 사상전문가 자문에 따른 정리

10명 사상전문가가 각 문항에 4점 만점으로 평가, 40점 만점으로 각 문항을 평가하여 점수별로 정리하였습니다.

※ 자문위원 : 경희대(송일병 고병희 이수경) 상지대(김달래) 동국대(박성식) 우석대(송정모) 원광대(김경요) 동신대(김일환) 대전대(안택원) 사상학회이사(조황성)

4) 2차 사상전문가 자문에 따른 정리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채택), ×(애매함), △(비채택) 로 표시하여, ○은 1점 ×는 0점, △는 0.5로 처리했습니다.

5) 각 체질별 사상체질진단표준안 (최종안)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은 각 전문가의 70%이상(10명중 7명이상)표준안으로 채택한 경우에 채택하였습니다. 태양인은 체질적도내용이 부족하므로 각 전문가의 60%이상 표준안으로 채택한 경우 10명 6명 이상이 채택해야 채택하였습니다.

본 론

1. 체질진단 기준의 범주에 따른 내용정리

동의수세보원 변증론을 위주로 하여 분석해보면 크게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약리의 4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체형기상은 주로 체격의 대소 신체부위의 발달정도 등의 내용으로 ①체격의 대소 ②자세 ③肥瘦의 정도④신체부위의 발달정도 ⑤늑골각도 ⑥복부와 흉곽의 발달정도 ⑦척도법 ⑧기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용모사기는 얼굴형 이목구비 태도 분위기 등의 내용으로 ①전반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 ②얼굴형 ③걸음걸이의 특징 ④얼굴부위의 특징 ⑤이목구비의 모양과 특징 ⑥말하는 태도와 분위기 ⑦기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성질재간은 성격 기질 성향 등의 내용으로 ①성질 ②재간 ③성격 ④항심 ⑤심욕 ⑥기타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병증약리는 생리적 병리적 병증 소증 등으로 ①완실부병 ②대병 ③특이병증 ④소증 ⑤맥 ⑥피부의 특징 ⑦기타 ⑧병력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에서 문헌고찰을 통해 정리한 것을 위의 4대 범주와 세부별 분류로 다시 정리하였다.

체질진단 기준의 범주에 따른 내용정리는 편리상 태양인-I 소양인-II 태음인-III 소음인-IV으로 표기하고, 체형기상-A 용모사기-B 성질재간-C 병증약리-D로 표기하였으며 세 분류는 알파벳 소문자로 표기하였고 각 문항에는 원문자 번호로 표기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2. 1차 사상전문가 자문에 따른 정리

10인의 사상전문가에 대한 자문결과정리 하였다. 10명에게

각 문항에 4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40점 만점으로 각 문항을 평가하여 점수별로 정리하였다.

문헌에 나오고 전형적인 문항이 점수가 높고 그 외는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편리상 앞으로 태양인 I, 소양인 II, 태음인 III, 소음인 IV으로 하고, 체형기상 A, 용모사기 B, 성질재간 C, 병증약리 D로 표기하여 설명하였다.

1) 태양인

태양인에서 21점 이상(40점 만점)을 받은 것을 살펴보면 전체로는 태양인 56문항 중 34문항(60.7%)이 21점 이상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체형기상에서는 d-①(상체 발달 26점), c-①(마른 편 23점), f-①(복부형-태음인과 정반대 21점), h-①(태양인 여자 불임 21점) 등 7문항에서 4문항(57.1%)이 20점 이상을 받았고, B용모사기에서는 f-①(거침없고 과단)②(말이 많고 급함) a-①(용모 뚜렷, 눈에 빛 남)⑤(눈에 광채가 난다) c-①(오래 견지 못한다) 등 16문항 중 5문항(31.25%)이 21점 이상을 받았고, C성질재간에서는 e-①(예의 없이 멋대로)②(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③(공손하지 않은 편)⑤(의욕과잉, 자존심 강함) b-①(쉽게 사귀는 편, 소통 잘 됨)②(과단 진취)③(머리가 명석 창의력 직관) d-①(급박지심) e-⑦(반대하는 것 참지 못함) c-①(물러서지 않고 밀고나감)②(남성적)③(강직 독선) e-④(원만한 일을 성취해도 부족함)⑥(방종 안하무인 자기제일주의 분쟁) f-①(실패해도 후회할 줄 모름 계획성 적음) a-①(성격이 시원, 시원한 일처리) 등 20문항 중 16문항(80%)이 21점 이상을 받았고, D병증약리에서는 d-①(건강時증상)②(病時증상)③(8-9일 대변불통)④(태양녀..) c-①(噎膈證)②(解體證) a-①(소변불쾌) b-①(8-9일 대변불통, 입에 거품) f-①(소음과 비수) g-②(음성이 경쾌하고 강하다) 등 13문항 중 9문항(69.23%)이 21점 이상을 받았다. 21점 이상 문항의 비율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C성질재간(80%) D병증약리(69.23%) A체형기상(57.1%) B용모사기(31.25%)의 순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2) 소양인

소양인에서 21점 이상(40점 만점)을 받은 것을 살펴보면 전체로는 소양인 88문항 중 63문항(71.6%)이 21점 이상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체형기상에서는 11문항(100%) 모두가 21점 이상을 받았고, B용모사기에서는 d-① e-⑥④ c-③ d-②⑤ g-④ c-⑥④ d-⑬ e-⑤ d-⑫④⑩을 제외한 40문항 중 25문항(62.5%)이 21점 이상을 받았고, C성질재간에서는 최소 25점으로 18문항(100%) 모두가 21점 이상을 받았고, D병증약리에서는 c-②(변비가 있으면 견디기 힘 듬)③(腹痛下利時에 口渴을 동반) f-①(肌肉淺薄欠澤) a-①(몸 안 좋으면 변비) b-①(건망증)②(대변불통) c-①(불대변시 가슴 답답) g-①(音聲이 가늘고 맑다)⑥(낭랑하다) 등 19문항 중 9문항(47.4%)이 21점 이상을 받았다. 21점 이상 문항의 비율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A체형기상(100%) C성질재간(100%) B용모사기(62.5%) D병증약리(47.4%)의 순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3) 태음인

태음인에서 21점 이상(40점 만점)을 받은 것을 살펴보면 전체로는 태음인 103문항 중 78문항(75.7%)이 21점 이상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체형기상에서는 d-③(삼각형 모양의 체형이다)을 제외한 15문항 중 14문항(93.3%) 모두가 21점 이상을 받

았고, B용모사기에서는 총 31문항에서 c-⑤(걸을 때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f-①(말이 없고 말을 하면 같은 말을 반복한다) d-⑥(턱이 길고 후중) e-①(이췌관이 두텁다) g-②(눈썹 솔이 많은 경향)①(머릿결이 굵고 부드럽다) d-④(뒤통수와 이마가 떨어져 구부러져 있음)⑤(이마나 콧등에 주름이 있다)③(鼻腔露而滯者 眼球黑如漆點者) 등 9문항을 제외한 22문항이(71%) 21점 이상을 받았고, C성질재간에서는 총 40문항 중 f-⑧⑬⑨⑦⑥⑩ d-② f-⑩⑪⑭ 등 10문항을 제외한 30문항(75%)이 21점 이상을 받았고, D병증약리에서는 총 17문항에서 e-① g-⑦⑧①④ 등 5문항을 제외한 12문항(70.6%)이 21점 이상을 받았다. 21점 이상 문항의 비율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A체형기상(93.3%) C성질재간(75%) B용모사기(71%) D병증약리(70.6%)의 순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4) 소음인

소음인에서 40점 만점 중 21점 이상을 받은 것을 살펴보면 전체로는 소음인 121문항 중 79문항(65.3%)이 21점 이상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체형기상에서는 13문항 중 d-④ f-① d-⑥⑦ 등 4문항을 제외한 9문항(69.2%) 모두가 21점 이상을 받았고, B용모사기에서는 총 34문항에서 a-① f-① a-②④③ c-①② f-④ a-⑥ e-⑤ a-⑤ d-⑥ 등 12문항이(35.3%) 21점 이상을 받았고, C성질재간에서는 총 51문항 중 d-① f-⑩⑪⑫③⑩⑩ e-① 등 9문항을 제외한 42문항(82.35%)이 21점 이상을 받았고, D병증약리에서는 총 23문항에서 d-⑤ g-④⑤①② d-④ f-⑥ 등 7문항을 제외한 16문항(69.6%)이 21점 이상을 받았다. 21점 이상 문항의 비율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C성질재간(82.35%) D병증약리(69.6%) A체형기상(69.2%) B용모사기(35.3%)의 순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3. 2차 사상전문가 자문에 따른 정리

10인의 전문가에게 앞서 점수로 평가한 표준안을 다시 재검토하여 표준안 채택 여부를 ○(채택) ×(비채택) △(결정 보류) 로 표시하여 재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은 1점, ×는 0, △로 표기한 경우는 0.5로 처리하여 아래 표로 정리하였으며, 정리한 것을 체질별 범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태양인 문항(51문항)은 체형기상(7문항)에서 3.5점을 받은 1문항 외 모두 6.5점 이상으로 평균 7.4점을 받았고, 용모사기(16문항)에서는 평균 5.97점을 받았고(0점 받은 1문항을 제외하면 6.4점) 성질재간(20문항)에서는 평균 6.6점을 받았고 병증약리(13문항)에서는 8점을 받았다. 범주별로 평균치를 살펴보면 병증약리(8점) 체형기상(7.4) 성질재간(6.6) 용모사기(6.4) 순이며, 태양인 전체 평균은 7.5점으로 나왔다.

소양인 문항(88문항)은 체형기상(11문항)에서 평균 8.2점을 받았고 용모사기(40문항)에서는 평균 7.45점을 받았고 성질재간(18문항)에서는 평균 9.19점을 받았고 병증약리(19문항) 평균 7.16점을 받았다. 범주별로 평균치를 살펴보면 성질재간(9.19) 체형기상(8.2) 용모사기(7.45) 병증약리(7.16) 순이며, 소양인 전체 평균은 7.84점으로 나왔다.

태음인 문항(103문항)은 체형기상(15문항)에서 평균 8.33점을 받았고 용모사기(31문항)에서 평균 6.94점을 받았고 성질재간(40문항)에서 평균 7.48(0점 1문항 제외시 7.62점)을 받았고 병

증약리(17문항)에서 평균 7.12점(0점 받은 2문항을 제외하면 7.93 점)을 받았다. 범주별로 평균치를 살펴보면 체형기상(8.33) 성질재간(7.48/7.62) 병증약리(7.12/7.93) 용모사기(6.94) 순이며 태음인 전체 평균은 7.38점(0점 3문항을 제외하면 7.605점)으로 나왔다.

소음인 문항(124문항)은 체형기상(15문항) 평균 7.03점(체크 안 된 2문항을 제외하면 8.12점) 용모사기(35문항) 평균 5.84점 성질재간(51문항) 평균 7.01점(체크 안 된 1문항을 제외하면 7.14 점) 병증약리(23문항)는 평균 7.24점을 받았다. 범주별 평균치를 살펴보면 병증약리(7.24) 체형기상(7.03/8.12) 성질재간(7.01/7.14) 용모사기(5.84) 순이며 소음인 전체 평균은 6.96점으로 나왔다. 평가 안 된 3문항은 1차 2차 전문가 평가에서 모두 누락되어 있으므로 제외하면 소음인 문항은 121문항이 되며 전체 평균은 7.14점이 되며 범주별로는 체형기상-병증약리-성질재간-용모사기의 순서로 바뀌게 된다.

체질별로 평균치를 살펴보면 소양인(7.84) 태양인(7.5) 태음인(7.38/7.61) 소음인(7.14)순으로 나와 양인 문항의 채택 점수 평균이 음인보다 높게 나왔다.

변증범주에서 체질차이를 살펴보면 체형기상은 태음인(8.33)-소양인(8.2)-소음인(8.12)-태양인(7.4) 용모사기는 소양인(7.45)-태음인(6.94)-태양인(6.4)-소음인(5.84) 성질재간은 소양인(9.19)-태음인(7.48/7.62)-소음인(7.14)-태양인(6.6) 병증약리는 태양인(8)-소음인(7.24)-소양인(7.16)-태음인(7.12/7.93) 순으로 나왔다. 체형기상에서 태양인은 낮게 나왔으나 소양인과 태음인은 체형기상과 용모사기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고 성질재간은 소양인이 높고 병증약리는 태양인이 높게 나왔다.

4. 각 체질별 사상체질진단표준안

최종안의 마련을 위해 각 전문가의 회의를 통해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은 각 전문가의 70%이상(10명중 7명이상)표준안으로 채택한 경우에 채택하고 태양인은 체질적도내용이 부족하므로 각 전문가의 60%이상 표준안으로 채택한 경우 10명 6명 이상이 채택해야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의 표준안을 정하였다.

1) 태양인

총 채택된 태양인 표준안은 6점 이상이 체형기상 6문항, 용모사기 9문항, 성질재간 16문항, 병증약리 10문항으로 총41문항이 채택되었다.

9명 이상이 채택한 것은 I-A-d-①(상체발달-목덜미가 발달 허리와 양옆구리가 좁은 편), I-B-f-①(말하는 태도와 분위기가 거침이 없고 과단성이 있다), I-D-d-①(健康時-面色白 肌肉瘦 大便活泄 小便量大), I-A-c-①(마른 편 기육은 수척하다), I-B-a-①(수척해보이나 용모가 뚜렷하다, 눈이 빛난다), I-D-d-③(8-9 일 大便不通 其病非殆證), I-C-e-⑤(의욕과잉으로 주위와 동화가 안 된다. 과장심이 많고 자존심이 강하다), I-D-d-②(病時-面色黑 肥胖), D-c-①(啞膈證-이유 없이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I-D-c-②(解體證-온몸과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I-D-a-①(몸이 안 좋으면 항상 소변부터 불쾌해진다)이다.

체형기상에서 I-A-a-①(체격이 큰 편)는 소음인같이 태양인

이 있으므로 임상 상 의미가 없어 채택되지 않았다.

용모사기에서 I-B-a-②(단아한 느낌) I-B-b-①(가름하면서 원형, 둥근 편) I-B-d-②(이마가 넓다. 관골이 나왔다. 인중이 짧다) I-B-e-①(耳輪이 크고 눈이 빛나며 鼻梁이 높고 입은 작다) I-B-e-②(귀가 크고 길다, 귀가 충실하고 바르게 잘 생겼다) B-g-①(수염이 자라지 않거나 수염이 아주 조금밖에 자라지 않기도 한다) I-B-g-②(대머리가 많고 머리카락은 굵고 단단하고 팔다리에 털이 많다)는 임상 상 의미가 없어 표준안에서 제외되었다.

성질재간에서는 I-C-e-④(웬만한 일을 성취하였어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I-C-f-②(이성에 대하여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꽤 대법하다), I-C-f-③(남자-호색한이나 음란하지는 않고 수완이 없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I-C-f-④(여자-연애광으로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술집기생이나 음탕한 여자가 되기 쉽다)는 임상 상 의미가 없어 표준안에서 제외되었다.

병증약리에서는 I-D-g-①(舌質紅或紫而暗,呼吸-沈而重,聲音-清而圓,哭笑樣-放聲大笑), I-D-h-①(허리와 발끝에 힘이 없다 남성-완고한 방광염), I-D-h-②(여성-안면부종이나 안면근육무력 쇠퇴증에 많이 걸림)은 표준안에서 제외 되었다.

2) 소양인

총 채택된 소양인 표준안은 7점 이상이 체형기상 7문항(7/11), 용모사기 28문항(28/40), 성질재간 18문항(18/18), 병증약리 11문항(11/19)으로 총64문항이 채택되었다.

10점 이상은 II-A-d-①(상체발달-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II-A-d-②(가슴부위 발달 엉덩이가 약한 편) II-A-d-③(가슴이 넓고 튼튼한 편이다) II-B-a-①(얼굴이 각이 지고 눈빛이 날카로우며 전반적으로 강인한 느낌을 준다) II-B-a-⑥(뚝뚝-명쾌한 느낌, 얼굴에 날카로운 기운이 있다, 脣頰淺薄 有剽銳氣-馬之性) II-B-c-①(머리를 들고 걸음걸이가 빠르고 몸을 흔든다) II-B-f-②(말하는 투가 활발하다) II-B-f-⑤(語韻이 맑고 기운이 좋은 편이다) II-C-a-①(剛武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민첩하고 용감하다) II-C-b-①(事務. 매사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자기일보다 남의 일을 더 잘 보아준다) II-C-d-①(懼心-일을 벌여만 놓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여 항상 걱정스럽다-건망증) II-C-e-②(아는 적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II-C-e-⑦(과장을 잘 하며 이기기를 좋아함) II-C-f-③(심증을 잘 냄, 경솔한편) II-D-c-②(변비가 있으면 견디기가 힘들다) II-D-c-③(腹痛下利時에 口渴을 동반한다) II-D-f-①(肌肉淺薄欠澤 피부가 얇고 윤택이 없다, 희지만 윤기가 적다, 모공은 보통이나 큰 자도 있다) 등이다.

9점 이상 10점미만은 II-A-a-①(체격은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 II-A-a-②(왜소한 체격) II-A-d-④ II-A-f-①(흉곽이 복부보다 큰 편임 복부형-팽이형) II-B-a-③(눈코입이 날카롭고 예민한 기운이 느껴진다) II-B-a-④(명랑하고 씩씩하고 활동적이고 용감하게 보인다) II-B-b-①(역삼각형으로 관골부위가 발달되어 있다) II-B-d-⑥(두형은 전후가 돌출 자가 많다) II-B-e-③(눈빛이 날카롭고 빛난다) II-B-f-④(말소리가 낭랑하며 얼굴은 명랑하다) II-C-b-②(밖의 일을 중요시하고 가정을 가볍게 여긴다) II-C-e-①(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일을 처리함) II-C-e-③(매사에 능수능란한 편이다) II-C-e-⑥(허영심이 많다) II-C-f-①(부지런한 성격-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남) Ⅱ-C-f-④(씩씩하고 인정이 많다) Ⅱ-C-f-⑤(급하고 발끈하기를 잘하며 참을성이 없다) Ⅱ-C-f-⑥(활동력이 강하여 일을 좋아하며 두뇌가 명석하여 판단력이 빠르다) Ⅱ-D-b-①(건망증) Ⅱ-D-b-②(대변불통하는 것) Ⅱ-D-c-①(하루라도 대변을 못 봐도 가슴이 답답하다)등이다.

체형기상에서는 Ⅱ-A-c-①(마른 편 비후하지 않은 편), Ⅱ-A-d-⑤(손이 큰사람이 많고 족부는 足脛骨部가 細小한 편임), Ⅱ-A-e-①(90도 이상의 둔각이 많은 편 간혹 예각도 있음), Ⅱ-A-g-①(제2선이 가장 큰 편,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줄어드는 양상)은 7점미만으로 표준안에서 제외되었다.

용모사기에서는 Ⅱ-B-a-⑦(고양이나 호랑이와 같이 강인한 인상을 풍기는 동물을 연상하게 된다) Ⅱ-B-c-②(보행시 머리를 들거나 서서는 얼굴을 들기를 좋아하고 까불기를 잘한다) Ⅱ-B-c-③(항상 면대를 바라보면서 걷고 걸을 잘 살피지 않는다) Ⅱ-B-d-②(눈동자가 크고 눈알이 튀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 Ⅱ-B-d-④(머리에 남북이 나왔다 미간이 명랑하다) Ⅱ-B-d-⑤(입술과 이마가 얇고 수염이 적다) Ⅱ-B-d-⑩(머리카락이 새끼말고 윤기가 있다) Ⅱ-B-d-⑪(대머리가 잘 안 된다) Ⅱ-B-d-⑫(일자형 눈썹이 많고 턱수염과 콧수염이 적다) Ⅱ-B-d-⑬(앞머리가 성글고 빠드러진 자가 많다) Ⅱ-B-e-⑤(눈썹이 맑고 눈이 반사적이어서 혹 시선을 맞추기가 두렵다)는 7점미만으로 표준안에서 제외되었다.

성질재간에서는 Ⅱ-C-e-5 1문항을 제외하고 모두가 8점 이상을 받아 전부 채택되었다.

병증약리에서는 Ⅱ-D-d-①(汗有而不疲 下多而大疲 不耐痛者) Ⅱ-D-d-③(病時-嘔吐 下利多 鼻出血) Ⅱ-D-e-①(浮數하며 혹은 미약한 자도 있다) Ⅱ-D-g-③(呼吸-淺而短) Ⅱ-D-g-④(哭笑樣-易哭笑) Ⅱ-D-g-⑤(소리가 가볍고 낮다) Ⅱ-D-h-①(萎縮性胃炎 膽囊炎 尿毒症 癱瘓이 잘 생기며) Ⅱ-D-h-②(평소에는 위장병 간염 건선과 같은 피부병, 자반증 뇨혈증에 자주 걸림)는 7점미만으로 표준안에서 제외되었다.

3) 태음인(Ⅲ)

총 채택된 소양인 표준안은 7점 이상이 체형기상 12문안(12/15), 용모사기 19문안(19/31), 성질재간 28문안(28/40), 병증약리 12문안(11/17)으로 총64문안이 채택되었다.

10점은 Ⅲ-A-a-①(체격은 큰 편-사상인중에서 가장 큰 편이다) Ⅲ-A-c-①(뚱뚱하고 비만형이다) Ⅲ-A-c-②(기육이 대체 비만하고 견실함) Ⅲ-A-d-①(하체발달-허리(腰脇)가 발달 목덜미(머리, 견배)가 빈약, 손발이 크다) Ⅲ-B-a-①(용모가 의젓하고 격식(체면)을 차리는 편이다) Ⅲ-B-a-④(얼굴의 기질이 점잖으면서 무게가 있다) Ⅲ-B-e-④(입술이 두툼하다) Ⅲ-C-a-①(시작한 일은 끝까지 성취하는 편이다) Ⅲ-C-a-②(사업성취에 장기가 있고 거처 범절에 儀範이 있으며 內明하다) Ⅲ-C-b-①(진듯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Ⅲ-C-c-①(안에서 주로 활동하며 보수적인 성격이다) Ⅲ-C-e-③(점잖은 척할 때가 많은 편이다) Ⅲ-C-f-⑬(과묵하고 표정의 변화가 없다) Ⅲ-C-f-⑯(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고집이 세다) Ⅲ-C-f-⑰(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Ⅲ-D-a-①(몸이 안 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 Ⅲ-D-f-③(피부근육이 견고하고 땀구멍이

성글다)등이다.

9점 이상 10점미만은 Ⅲ-A-a-②(골격은 견실하며 빛이 검고 신장은 건장 長大 혹은 矮短者) Ⅲ-A-c-④(골격이 굵고 키가 크며 살이 비대하며 특히 손발이 크다) Ⅲ-B-a-②(의젓하고 듬직하다-容貌厚重者,面色暗暗, 표정-沈默寡言儼然) Ⅲ-B-a-③(의젓 진중-바르고 뚝뚝함) Ⅲ-B-c-①(머리를 구부리며 걸음걸이가 느리고 무게 있게 걷는다) Ⅲ-B-c-④(느리고 절도가 있다) Ⅲ-B-d-②(턱이 길고 풍부하다) Ⅲ-B-e-②(눈코는 크고 코끝은 鈍平하고 입과 입술이 두텁다) Ⅲ-B-e-⑤(코도 눈도 입도 큼직하다) Ⅲ-B-e-⑦(얼굴은 윤곽이 뚜렷하며 눈 코 귀 입이 크고 입술이 두텁다) Ⅲ-B-f-②(말이 적으며 語韻이 웅장한 자도 있으나 대개는 침중한 편이다) Ⅲ-C-b-②(어느 곳이나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함) Ⅲ-C-c-②(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Ⅲ-C-e-①(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지나쳐서 집착을 하는 편이다) Ⅲ-C-e-⑥(교만심 탐욕심이 많다) Ⅲ-C-f-②(정직하고 고집이 세어 변동이 적다) Ⅲ-C-f-④(오락을 좋아하고 일을 싫어한다) Ⅲ-C-f-⑤(연구가 깊고 뒤를 열려하는 생각이 주밀하여 성취성이 강하다) Ⅲ-C-f-⑰(꼭 참고 툭툭 내뱉지를 않는다) Ⅲ-D-b-①(피부의 주리가 치밀하여 땀이 나오지 않는 것, 정중증) Ⅲ-D-f-①(肌肉肥胖堅實-피부가 거칠다) Ⅲ-D-f-②(모공이 큰 편이다) Ⅲ-D-g-⑤(소리가 무겁다)등이다.

체형기상에서는 Ⅲ-A-c-③(단 變體는 수척한 자도 있다) Ⅲ-A-d-③(삼각형모양의 체형이다-머리가 몸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Ⅲ-A-g-①(제4선이 가장 큰 편이며 가운데가 볼록해지는 양상)은 7점미만으로 표준안에서 제외되었다.

용모사기에서는 Ⅲ-B-a-⑥(여자는 눈매가 시원스럽고 남자는 눈 끝이 올라가서 범상 같고 또 성난 사람 같은 인상을 준다) Ⅲ-B-c-③(걸음걸이가 반듯하다) Ⅲ-B-c-⑤(걸을 때는 고개를 떨어 뜨리고 앞을 내려다보며 배를 내밀고 발을 땅에 놓는 것이 안정성이 있어 오리걸음같이 걷는다) Ⅲ-B-e-Ⅲ-B-d-①(양미간사이가 넓다) Ⅲ-B-d-③(鼻腔露而滑者 眼球黑如漆點者) Ⅲ-B-d-④(뒤통수와 이마가 떨어져 구부러져 있음) Ⅲ-B-⑤(이마나 콧등에 주름이 있다) Ⅲ-B-d-⑥(턱이 길고 후중하여 교만하게 보임) Ⅲ-B-e-①(이륜곽이 두텁다) Ⅲ-B-f-①(말이 없고 말을 하면 같은 말을 반복한다-만연체로 표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흥분하는 경우가 많다) Ⅲ-B-g-①(머릿결이 굵고 부드러다) Ⅲ-B-g-②(눈썹 술이 많은 경향이 있다)는 7점미만으로 표준안에서 제외되었다.

성질재간에서는 Ⅲ-C-d-②(남 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Ⅲ-C-e-⑤(풍족한 상태에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Ⅲ-C-f-⑥(행동-활동적) Ⅲ-C-f-⑦(태도-행동이 듬직하며 체력도 좋고 꾸준하여 활동적이나 게으른 점도 있다) Ⅲ-C-f-⑨(쉽게 흥분하여 원인을 잊어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규칙을 잘 지키고 예의가 바르다) Ⅲ-C-f-⑩(부끄럼을 잘 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않는다) Ⅲ-C-f-⑪(다른 사람과의 교류 중에 말하거나 안색을 잘 살피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Ⅲ-C-f-⑫(성생활을 할 때도 달콤한 말을 속삭이지 않는다) Ⅲ-C-f-⑬(불쾌한 일은 곧 잊어버린다) Ⅲ-C-f-⑭(물욕이 강하고 비속한 취미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Ⅲ-C-f-⑰(일을 제대로 못하고 늦게 서

두른다) Ⅲ-C-f-⑨(교수하는 능력이 사상인중에서 가장 뛰어난)은 7점미만으로 표준안에서 제외되었다.

병증약리에서는 Ⅲ-D-e-①(長而緊) Ⅲ-D-g-①(舌黃淡紅 苔膩) Ⅲ-D-g-③(호흡-粗而長) Ⅲ-D-g-④(哭笑樣-心裏哭笑), Ⅲ-D-g-⑧(여자들은 겨울에 손이 많이 튼다)은 7점미만으로 표준안에서 제외되었다.

4) 소음인(IV)

총 채택된 소음인 표준안은 7점 이상이 체형기상 11문안(11/15), 용모사기 19문안(11/35), 성질재간 39문안(39/52), 병증약리 17문안(11/23)으로 총86문안이 채택되었다.

10점은 IV-A-a-①(체격이 작은 편-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힘, 신장이 대개 矮小하나 或長大者도 있다) IV-A-d-①(하체발달-엉덩이발달 가슴부위빈약) IV-A-d-⑤(키가 작고 아담하며 엉덩이가 풍만하다) IV-B-a-①(표정이 온순하고 얌전하며 용기-기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짐) IV-B-f-①(말을 침착하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편이다, 음성은 침착하고 온순한 편이다) IV-C-a-①(유순하고 섬세하고 침착하다) IV-C-a-③(단정하고 신중하다) IV-C-c-④(장점-섬세 단점-우유부단) IV-C-d-③(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을 치며 불안해한다) IV-C-e-⑦(생이나 질투심이 많은 편이다 안일에 빠지기 쉽다) IV-D-a-①(몸이 안 좋으면-또는 기름지거나 찬 음식을 먹으면-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IV-D-b-①(평소엔 땀이 적으나 병이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많이 난적이 있다) IV-D-f-④(기욕은 부연하다)등이다.

체형기상에서는 IV-A-b-①(등이 앞으로 굽은 편-기대기를 잘 한다) IV-A-d-⑥(접시형 유방이 많다) IV-A-d-⑦(손발이 큰 느낌을 주지만 손끝이 가늘고 손톱이 작다) IV-A-d-⑨(臂大 足大)는 7점미만으로 표준안에서 제외 되었다.

용모사기에서는 IV-B-a-①(표정이 온순하고 얌전하며 용기-기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짐) IV-B-a-②(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IV-B-a-③(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여 예쁘장하다고 느껴짐) IV-B-a-④(용모가 단정하다) IV-B-a-⑥(여성은 귀부인의 자태처럼 여성미가 있다) IV-B-b-③(달걀형이며 약간 가름한 얼굴형의 미남미녀가 많다) IV-B-c-①(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얌전하다.앞을 수그린다) IV-B-c-②(조심성 있게 걷는 편이다) IV-B-f-①(말을 침착하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하는 편이다, 음성은 침착하고 온순한 편이다) IV-B-f-④(말을 할 때에는 눈웃음을 짓고 조용하고 침착하며 조리 정연함) IV-B-g-②(머리카락이 검고 술이 많다.가늘고 부드럽다)는 7점 이상으로 표준안 문안으로 채택되었다.

전반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는 IV-B-a-⑤를 제외하고 모두 채택되었고, 얼굴형은 IV-B-b-③을 제외하고 모두 비채택 되었으며, 걸음걸이의 특징은 IV-B-c-①②를 제외하고 비채택 되었으며, 얼굴부위의 특징 이목구비의 모양과 특징은 모두 비채택 되었으며, 말하는 태도와 분위기는 ②③문안을 제외하고 채택되었고, 기타에서는 ②를 제외하고 비채택 되었다.

성질재간에서는 IV-C-a-⑦(항상 집에 있기를 좋아하고 나가기를 싫어한다) IV-C-b-③(사치하기를 좋아하고 친숙인과 교류하기를 좋아한다) IV-C-e-①(懦-偷逸) IV-C-f-⑥(태도-갈끔하여 집에 들어앉기를 원하며 매사에 소극적임) IV-C-f-⑧(마음에 단단히

기약을 이루려는 마음이 있다) IV-C-f-⑨(쉽게 화를 내는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IV-C-f-⑩(격조가 있으면서도 명쾌한 성격이다) IV-C-f-⑪(利己主義者) IV-C-f-⑫(남을 증상하고 해치기를 좋아한다) IV-C-f-⑬(질투심이 많아 남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고 번영하는 것을 싫어한다) IV-C-f-⑭(실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이해타산 적이다) IV-C-f-⑮(판단력이 빠르고 매우 조직적이며 사무적이다)는 7점미만으로 표준안에서 제외되었다.

병증약리에서는 IV-D-d-④(낮 12시 전후로 피곤하다) IV-D-f-⑥(겨울에도 손발이 잘 트지 않는다) IV-D-g-①(舌質淡 苔白薄,多言) IV-D-g-②(성음-半滿半濁) IV-D-g-④(哭笑樣-微笑) IV-D-g-⑤(소리가 활발하다)는 7점미만으로 표준안에서 제외되었다.

고 찰

등무 이제미는 1894년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여 인간이 성정의 편차에 의해 장부의 대소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병증과 치료를 달리 하는 사상체질의학학을 창시하였다.

사상인의 진단은 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항심, 심육, 생리적 체질증과 병리적 체질병증에 대한 기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른 체질진단은 습득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 및 사상의학이론에 대한 숙달된 지식이 필요하며 주관적인 경향을 띠기 쉽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왔다.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Ⅱ)가 타당화 검증과정을 거쳐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객관적 진단방법에 대한 많은 연구에 비해 사상인 체질진단에서 사상체질변증기준(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약리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일된 체질변증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헌고찰을 통한 정리 및 임상적 평가를 통한 공통된 체질진단표준안을 마련하여 체질진단의 근거 제시의 기준을 마련한다면 사상임상교류가 활성화되고 사상임상연구의 발전이 촉진되며 이후 설문문항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동일한 체질 기준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사상문헌 및 여러 사상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체질진단 기준을 고찰 정리하였고 그 후에 다시 10명의 사상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사상체질 체질진단의 범주별(체형기상 용모사기 성질재간 병증약리)로 정리하였다. 체질진단 문항은 총 문항으로 태양인 문항은 체형기상 7문항 용모사기 16문항 성질재간 20문항 병증약리 13문항으로 총 56문항이고 소양인 문항은 체형기상 11문항 용모사기 40문항 성질재간 18문항 병증약리 19문항으로 총 88문항이고 태음인 문항은 체형기상 15문항 용모사기 31문항 성질재간 41문항 병증약리 18문항(뒤에 평가시 1문항은 제외) 총 104문항이고 소음인은 체형기상 15문항(뒤에 평가시 2문항 평가 제외) 용모사기 35 성질재간 52문항(뒤에 1문항 제외) 병증약리 23문항 총 125문항으로 정리 되었다. (체질진단 기준의 범주에 따른 내용정리는 앞으로의 설명에 용이하게 편리상 앞으로 태양

인 I 소양인Ⅱ 태음인Ⅲ 소음인Ⅳ으로 하고, 체형기상A 용모사기B 성질재간C 병증약리D로 표기하였으며 각 문항에는 원문자 번호로 표기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리된 그것을 10인의 사상전문가에게 1차 2차에 걸쳐 평가하여 정리하여 표준안을 만들다. 대체로 1차에서는 문헌에 나오고 전형적인 부분의 문항이 점수가 높았고 2차에서는 1차에서 점수는 높지만 임상상 의미가 없는 것은 채택이 안 되는 문항이 있어 1차와 차이를 보였다.

1. 1차 사상전문가의 평가

1차 평가는 10인의 사상전문가에게 각 문항에 4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40점 만점으로 각 문항을 평가하여 점수별로 정리하였다.

2. 2차 사상전문가 자문에 따른 정리

10인의 전문가에게 앞서 점수로 평가한 표준안을 다시 재검토하여 표준안채택여부를 ○(채택) ×(비채택) △(결정 보류) 로 표시하여 재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은 1점, ×는 0, △로 표기한 경우는 0.5로 처리하여 정리하였다

3. 표준안 채택

1) 태양인

총 채택된 태양인 표준안은 6점 이상이 체형기상 6문안, 용모사기 9문안, 성질재간 16문안, 병증약리 10문안으로 총41문안이 채택되었다. 병증약리에서는 I-D-c-②(解體證-온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려운 적이 있었다)에서 온몸과 다리는 소음인의 사지무력증과 혼동할 우려가 있고 解體證은 하반신의 무력이 위주가 되므로 “하체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 어려운 적이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D-f-①(피부가 소음인과 비슷하다軟하고 부드럽다)와 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2) 소양인

총 채택된 소양인 표준안은 7점 이상이 체형기상 7문안(7/11), 용모사기 28문안(28/40), 성질재간 18문안(18/18), 병증약리 11문안(11/19)으로 총64문안이 채택되었다.

체형기상에서는 복부와 흉곽의 발달정도에서 “복부형-팽이형”은 “복부형-역삼각형이거나 역사다리꼴 모양임(위가 아래보다 발달한 사다리꼴)-팽이형”으로 자세히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좋겠고, 척도법-“제2선이 가장 큰 편 점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줄어드는 양상, 여자인 경우에는 대체로 골반이 크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음”의 내용을 새로 첨가하고, 체격의 대소 중에서 “왜소한 체격”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용모사기에서는 얼굴형-“역삼각형으로 관골부위가 발달되어 있다”의 내용은 소음인 중에서도 관골이 크므로 삭제하거나 “관골 부위 및 측면이 발달하고 얼굴이 각이 진 경우가 많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얼굴부위의 특징 중 “관골 부위가 튀어나오고 눈이 작은 편이다” “두형은 전후가 돌출 자가 많다”

“머리는 앞뒤가 나오거나 둥근 편” “눈썹이 곱고 눈빛이 강렬하다” “입술이 얇고 콧대가 날카롭다”등의 내용도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하는 태도와 분위기중 “直言 多言 失言”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다고 보아 삭제하는 게 좋겠고, 걸음걸이의 특징 중 “동작이 電動의이다-사상인중에서 가장 뛰어남, 어깨를 앞뒤로 툭랑툭랑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며 걷는다”의 내용도 임상적인 의미가 적다고 보아 삭제하는 게 좋겠다.

성질재간에서는 그러나 심욕 중 “허영심이 많다”와 기타의 “일을 빨리 시작하고 끝내서 실수가 많음”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병증약리에서는 기타에서 “낭랑하다, 음성-急而去”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소증 중 II-D-d-①은 점수는 낮으나 임상적 의미가 있으므로 “自汗而少疲 盜汗而有疲 下多而大疲 不耐痛者” 변경하여 표준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

3) 태음인(Ⅲ)

총 채택된 소양인 표준안은 7점 이상이 체형기상 12문안(12/15), 용모사기 19문안(19/31), 성질재간 28문안(28/40), 병증약리 12문안(11/17)으로 총64문안이 채택되었다.

체형기상에서는 체격의 대소 중(Ⅲ-A-a-②)“골격이 견실하며 빛이 검고 신장은 건장 장대 혹 矮短者”은 “빛이 검고 장대 혹 矮短者”의 내용이 임상 상 의미가 적으므로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문안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비수의 정도 중(Ⅲ-A-c-④)“ 골격이 굵고 키가 크며 살이 비대하며 특히 손발이 크다” 중에서 “손발이 크다”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으므로 “골격이 굵고 살이 찐 편이다”로 수정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신체부위의 발달정도 중 “몸통도 크고 머리통도 크다”의 내용을 “머리가 몸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고, 신체부위의 발달정도 중 “배 허리 엉덩이가 두툼하다, 손발이 큼직하고 부드럽다, 目大 腹大 肥大 頭大”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용모사기에서는 얼굴형 중 “얼굴이 둥글거나 사다리모양(원형 타원형 사다리형)”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 하는 것이 좋겠다. 말하는 태도와 분위기 중 “言辭正大(언어가 올바르다)”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다고 보아 삭제하기로 하였다.

성질재간에서는 재간 중 “어느 곳이나 뿌리를 내리고 잘 정착함”과 “가정을 중하게 여기고 외계를 소홀히 하는 마음이 있다”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게 좋겠고, 기타에서 “오락을 좋아하고 일을 싫어한다, 정직하고 고집이 세어 변동이 적다, 喜怒哀를 형색에 나타내지 않는다, 침착하게 맡은 일을 꼭 성취하는 타입이다, 안일한 것을 좋아하고 동작하기를 싫어한다”“담대하고 후덕하고 도량이 있다, 자기의 이해 타산을 잘 따지며 계략을 잘 짜낸다, 자기주장을 할 때는 남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소신을 피력한다”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 하는 것이 좋겠다. 성격 중 “장점-너그러움, 단점-음흉”의 내용은 임상상 의미가 적어 삭제 하는 것이 좋겠다.

병증약리에서는 소증 중 “病時-大便秘燥, 소변이 많으며 물

이 많이 먹히는 것”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목소리가 조급한 느낌이 들거나 목이 쉬 가라앉는 다, 성음-濁而方, 찬밥을 먹어도 땀을 흘림”의 내용도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게 좋겠다.

4) 소음인(IV)

총 채택된 소음인 표준안은 7점 이상이 체형기상 11문항(11/15), 용모사기 19문항(11/35), 성질재간 39문항(39/52), 병증약리 17문항(11/23)으로 총86문항이 채택되었다.

체형기상에서는 신체부위의 발달정도 중 “②어깨가 조금 처져있다, ④엉덩이가 크다-성욕이 강하다”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다고 보아 삭제하기로 하였고, 복부와 흉곽의 발달정도 중 “흉곽과 복부가 모두 길고 가는 편임(세장한편임), 복부형-장고형”의 내용은 “복부형-아래가 위보다 발달한 사다리꼴”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용모사기에서는 얼굴부위의 특징 이목구비의 모양과 특징은 모두 비채택되었으며, 말하는 태도와 분위기는 ②③문항을 제외하고 채택되었고, 기타에서는 ②를 제외하고 비채택되었다. 전반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이미지(B-a) 중 “여성은 귀부인의 자태 처럼 여성미가 있다”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다고 보아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얼굴형(B-b) 중 “달걀형이며 약간 가름한 얼굴형의 미남미녀가 많다”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말하는 태도와 분위기(B-f) 중 “말을 할 때는 눈웃음을 짓고 조용하고 침착하며 조리 정연함”에서 “말을 할 때는 눈웃음을 짓고”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기타(B-g) 중에서 “머리카락이 검고 술이 많다가늘고 부드러움”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게 좋겠다.

성질재간에서는 성질(C-a) 중 “매사를 세밀하게 처리하나 꼼꼼하여 일에 진전이 없는 경우가 있음-박력이 없다, 치밀하고 잔재주가 있다 중 잔재주가 있음”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심욕(C-e) 중 “⑦샘이나 질투심이 많은 편이다 안일에 빠지기 쉽다”에서 “안일에 빠지기 쉽다”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다고 보아 삭제하기로 하였고, 기타(C-f) 중 “⑮가정적이고 아기가자한 면도 있다, ⑯기억력이 좋고 논리적이며 분석력이 뛰어나다, ⑰ 心性偏狹함, 일처리는 둘 사이에 지극히 비밀스럽다, ⑱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절약형이다, ⑳ 소극적이고 짜증도 잘 내며 질투심도 강하다. ㉑ 침착하고 온순하다-자기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병증약리에서는 大病(IV-D-b)인 “②咽喉證”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아 첨가하기로 하였다. 특이병증(IV-D-c)인 “①(병이 심해지면) 설사가 멎지 않으면 아랫배가 차갑게 느껴진다”와 素症(IV-D-d)인 “①手足분란증” 과 “③瘧疾惡寒中 不能飲冷水”, “⑥病時-속이 답답하고 汗出者, 日間 2-4次 설사가 있는 것, 日에 乾便 3-4次가 있는 것, 갑자기 입맛이 나서 음식을 배로 먹는 것”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피부의 특징(IV-D-f) 중 “②모공이 작다”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어 삭제하는 것이 좋겠고, 기타 증(IV-D-g) “③성음-緩而平(느리고 평안하다)”의 내용은 임상적인 의미가 적다고 보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1차 평가에서 동의수세보원 등 문헌에 나온 문항의 점수가 높았고, 2차 평가에서는 임상적 의미가 많이 작용되어 1차에 점수가 높아도 탈락되는 문항이 있었으며 문항이 문헌과 서적에서 가져와서 임상적으로 고쳐야 할 문항과 다시 재검토되거나 제외해야 할 문항이 다소 없지는 않다.

결론

10명의 사상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체질진단기준을 고찰 정리하고 체질진단의 범주별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여 사상체질진단의 표준안을 만들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태양인은 체질적도내용이 부족하여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채택해야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총 42문항을 채택하여 그중 체형기상에서 6문항 성질재간에서 16문항 용모사기에서 10문항 병증약리에서 10문항을 채택하였다. 소양인은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채택해야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총 63문항을 채택하였으며 그 중 체형기상에서 7문항 성질재간에서 17문항 용모사기에서 28문항 병증약리에서 10문항을 채택하였다. 태음인은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채택해야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총 71문항을 채택하였으며 그 중 체형기상에서 12문항 성질재간에서 28문항 용모사기에서 19문항 병증약리에서 12문항을 채택하였다. 소음인은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이 채택해야 채택하는 것으로 하여 총 54문항을 채택하였으며 그 중 체형기상에서 11문항 성질재간에서 21문항 용모사기에서 13문항 병증약리에서 9문항을 채택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Grant NO. B050010

참고문헌

1.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서울, 행림출판, pp 137-142, 1986.
2. 전국한의과대학사상의학교실. 개정증보사상의학. 서울, 집문당, pp 161-162, 2004.
3. 허만희 외 3인. 四象人の 形態學的 圖式化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4(1):107-148, 1992.
4. 고병희 외 8인. 사상체질별 두면부의 형태학적 특징. 사상체질의학회지 8(1):86-101, 1996.
5. 이수경 외 3인. 신체계측 및 검사소견을 중심으로 한 사상인의 특징에 관한 분석. 사상체질의학회지 8(1):349-369, 1996.
6. 이의주 외 3인. 한국인 신체분절에 관한 四象醫學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143-160, 1998.
7. 이의주, 고병희, 송일병. 사상인의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2):181-220, 1998.
8. 홍석철 외7인. 체간부의 사상체질별 형태학적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101-142, 1998.

9. 홍석철 외 2인. 사상체질별 상안부의 형태학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161-170, 1998.
10. 홍석철 외 5명.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를 위한 형태학적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171-180, 1998.
11. 김종원. 사상체질과 혈중 Prostaglandin E2치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9(2):245-262, 1997.
12. 조황성 외 7인. 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생화학적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사상체질의학회지 9(2):147-162, 1997.
13. 조동욱 외 8인. Amp-FLP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9(2):163-174, 1997.
14. 조동욱 외 3인. 유전자지문법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유전적 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8(2):151-160, 1996.
15. 최승훈, 임용빈, 이준우 외 2인, 사상체질유형과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유전자 Type(polymorphism)과의 상관관계. 사상체질의학회지 10(2):283-290, 1998.
16. 김정렬, 김달래. 계측기를 이용한 O-Ring Test법의 검증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7(1):69-102, 1995.
17. 김종원 외 2인. EAV의 측정치와 사상체질유형 및 증풍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7(2):59-88, 1995.
18. 성삼재 외 2명. 사상체질유형별 양도락 측정치에 대한 고찰. 경희한의대논문집 20(1):1-33, 1997.
19. 지규용 외 3명. 적외선 체열 촬영 진단기를 이용한 체질분류와 병리진단에 관한 임상적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14(2):30-63, 1993.
20. 김달래 외 2명. 성분분석법에 의한 사상체질 진단의 객관화 연구(1). 사상체질의학회지 10(1):65-80, 1998
21. 박성식 외 8인. 사상체질유형과 지문, 손바닥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10(1):81-100, 1998
22. 김태연 외 4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upgrade 연구(1). 사상체질의학회지 15(1):27-38, 1998.
23.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에 관한 소고. 대한한의학회지 6(1):40-47, 1985.
24.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변증방법론 연구(제2보). 대한한의학회지 8(1):146-160, 1987.
25. 김선호,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QSCC)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5(1):67-85, 1993
26. 이정찬, 고병희, 송일병. 사상체질분류검사의 준거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5(1):87-104, 1993.
27. 김선호 외 2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표준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8(1):187-246, 1996.
28. 이정찬 외 2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8(1):247-294, 1996.
29. 이의주 외 2인. 사상변증내용 설문조사지(I)의 타당화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7(2):89-100, 1995.
30. 박성식, 박은경, 최재영. 設問紙에 의한 四象體質 判定의 一致度 分析. 사상체질의학회지 11(1):103-118, 1999.
31. 김태연 외 4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Upgrade 연구(I). 사상체질의학회지 15(1):28-37, 2003.
32. 이상규 외 4인.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의 Upgrade 연구(II). 사상체질의학회지 15(1):40-48, 2003.